

국장을 통해 본 상장례 복식의 애통과 공공성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mjlee815@aks.ac.kr

1. 서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상황은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사가(私家)나 왕실(王室)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조선왕조에서는 이미 성종 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하여 상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해 놓았으며, 영조 때 다시 『국조속오례의』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당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휼(國恤)이 기존의 전례서(典禮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여 상례의 위계 및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상(喪)’은 상실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따라서 죽음을 완전한 존재의 소멸이 아닌 존재의 이동 또는 사라짐에 의한 이별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 이별을 슬퍼하는 심정을 문식(文飾)하고 떠나간 존재에 대한 효경을 지속하기 위해 각각의 의절을 규범화했다.

복식은 의례가 갖는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시각화된 주체이다. 그렇다면 망자에 대한 애통의 감정을 어디에, 어떻게 문식해야 그 슬픔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 또 그 슬픔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해야 망자에 대한 효경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상장례 복식은 크게 떠난 자와 떠나 보내는 자의 복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두 복식이 추구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죽은 자는 이승에서 입는 마지막 옷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 반면에 산자는 망자와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 슬픔을 표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친(親親)의 관계일수록 가장 거친 베로 슬픔의 극한 상태를 표현한다. 따라서 애통의 감정은 산자에 국한된다. 다만 국장은 일반 사가의 상례와 달리 가족간의 애통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장은 나라 전체의 슬픔이며, 그것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조의 국장을 중심으로 상장례의 애통과 공공성이 복식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영조빈전도감의궤』와 『국조상례보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애통의 감정은 최복의 갖는 특수성에서 찾고자 한다. 더우기 국상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슬픔이 아닌 국가 전체의 슬픔이었다. 따라서 애통의 공공성은 『영조국장도감의궤』 「반차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차도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신분별 복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영조국상으로 본 신분별 복제

영조(1694~1776)는 조선의 제 21대 국왕으로 1776년 3월 5일 묘시에 경희궁 집경당에서 승하하였다. 영조의 국상은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에 의거하여 치러졌다. 다만 3일째 거행하는 소렴의를 이튿날 거행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조오례의』의 의주절차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다. 영조 국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통해 복식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영조는 승하한 당일 목욕하고 이튿날 되는 6일 신시에 소렴례를 행하고 5일째 되는 9일 사시에 대렴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6일째 되는 10일 사시에 왕세손을 비롯한 산자들의 성복례를 이루어졌다.

성복례는 왕세손을 비롯하여 왕비, 혜빈, 왕세손빈, 내명부이하와 수릉관, 시릉내시 및 종친 문무백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복으로 갈아입는 의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영조빈전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으며, 복제 또한 상기(喪期)의 변화에 따라 각 신분별 복식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영조의 국상을 중심으로 성복의의 의례절차와 각 신분별·상기별 복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복의(成服儀)

성복의는 제 6일에 행하는 의식으로 2방에서 담당한다. 성복의의 절차는 제일 먼저 왕세손, 왕비, 혜빈, 왕세손빈, 내외명부, 수릉관, 시릉내시, 종친 및 문무백관 등이 최복으로 갈아입는 의식절차이다.

1각 전에 수사가 예전을 올리면 내시가 설치하고 향로, 합갑, 초를 설치한 후 문 바깥에 준과 준소를 설치하고 잔 3개를 준비한다.

다음에 감찰, 전의, 찬의, 인의가 자리를 잡으며, 인의가 종친 및 문무백관을 인도하고, 대전관 및 백관은 장을 들지 않고 빈전 안으로 들어가고, 내시는 장을 짚고 들어간다.

다음에 내시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빈전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곡한다. 왕비도 상궁의 인도를 받고 들어가 앉아서 곡한다. 왕세손빈과 내외명부 이하도 앉아서 곡한다. 수릉관, 시릉내시가 곡하고 찬의가 종친 및 문무백관에게 곡과 지곡을 청한다.

다음은 대전관이 향을 세 번 올리고 술을 세 잔 올리고 물러난다.

다음에 왕세손, 왕비, 왕세손빈, 내외명부 이하, 수릉관, 시릉내시, 종친 및 문무백관의 순으로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다음에 왕세손부터 왕비, 왕세손빈, 내외명부가 차례대로 나와 차로 돌아가고, 수릉관, 시릉내시, 종친 및 문무백관은 나와서 빈전의 동쪽계단 가까이 무릎을 꿇으면 반수가 명단을 올려 위로하고 나간다. 파산관, 관학생은 각기 옷을 입고 궐문 밖에 이르러 곡을 한다. 이상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최복으로 성복 - 예전 설치 - 곡하기 - 향과 술 올리기 - 진애하기 - 환차(還次)의 순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신분별 복제(服制)

영조 국장에 성복을 한 사람들은 왕세손, 왕비, 혜빈, 왕세손빈, 종친 및 문무백관, 종친

및 문무백관의 처, 수릉관, 시릉내시, 내시, 사알, 사약, 반감, 성중관, 녹사, 서리, 생원, 진사, 갑사, 정병, 서인, 승도, 초조례, 나장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상기에 따라 다른 상복을 입는다. 이들의 상복이 변하고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왕세손 복제

왕세손의 복은 참취(斬衰) 3년상이다. 왕세손의 상복은 의상(衣裳), 중의(中衣), 관(冠), 수질(首經), 요질(腰經), 교대(絞帶), 죽장(竹杖), 관리(菅履)로 구성된다. 이들 복식은 3년간의 상기를 거치면서 상사와 관련될 때에는 최복을 입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상시의 복식을 입고 그 역시 상기에 따라 소재를 달리한다. 왕세손의 복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왕세손의 복제

구분	의상	중의	관	건	수질, 요질, 교대	리, 화
참취3년	極麤生布, 不緝邊	若麤生布 緝邊	畧麤生布 麻繩-武,纓	畧麤生布	生麻 麻繩-首經纓, 腰經繫	菅履
사위	冕服					
졸곡후	視事服-生布袍		布裘翼善冠		布裘烏犀帶	白皮靴
13월연제	若麤生布, 不緝邊 (負版,辟領,衰去)	畧麤練布			首經 去 腰經-治葛,練布 繫 교대-畧麤練布	
시사복	白袍		白布裘翼善冠		白布裘烏犀帶	白皮靴
25월상제	黻布		翼善冠(白笠)		烏犀帶	白皮靴
27월담제	玄袍		翼善冠		烏犀帶	白皮靴
담제 후	袞龍袍				玉帶	

이상 왕세손의 복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상사(喪事)와 관련되어 처음 상을 당해 졸곡까지의 복식과 13월의 연제, 25월의 상제, 27월의 담제를 지낼 때의 복식인 최복과 평상시에 착용하는 시사복(視事服)이다. 그러나 이들의 복식 역시 상기가 지나면서 거칠기와 가늘기 및 색상에 있어 차이가 난다.

먼저 처음 상을 당해 졸곡까지는 의상과 중의는 극추생포를 입되 의상은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으며 중의는 가장자리를 꿰맨다. 관과 건은 대략 거친 생포를 사용하며, 관의 무와 영은 마승(麻繩)을 사용한다. 또 수질, 요질, 교대 역시 생마를 사용하며 수질의 끈은 마승을 사용하고 요질의 끈도 마승을 사용한다.

그러나 연제에는 최복에 있는 부판, 벽령, 쇠를 제거하고 수질을 제거하며 요질은 치갈로 하고 연포로 끈을 함으로써 생마보다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졸곡이 지난 후의 시사복은 생포에서 백포, 백포에서 참포, 참포에서 현포로 바뀌며,

담제 후에는 길복으로 곤룡포를 착용한다. 관과 대는 옷과 같이 상기에 따라 포로 짠 익선관에서 백포로 짠 익선관으로 바뀌는 데 25월 상제에는 참포를 입고 익선관을 쓰며, 대 역시 포로 짠 오서대에서 백포로 짠 오서대로 바뀌고 참포에 익선관을 쓰는 25월 상제에는 오서대를 띠고 담제 후에 옥대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상사 때 착용하는 상복의 소재는 상기에 따라 극추생포 - 락추생포 - 연포로 점차 거칠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으며 시사복에 있어서는 생포 - 백포 - 참포 - 현포 - 곤룡포의 순서로 이 역시 거칠기가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색도 소색에서 흰색, 짙은 옥색, 검정색으로 바뀌었으며, 길복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난 후에는 용의 문식이 들어간 곤룡포를 착용한다.

(2) 왕비 복제

왕비의 상복도 참최 3년상이다. 대수장군(大袖長裙), 개두(盖頭), 두수(頭簪), 채(釵), 대(帶), 화리(靴履)로 구성된다. 이들 복식은 3년간의 상기를 거치면서 상기에 따라 소재와 복색을 달리한다. 왕비의 복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왕비의 복제

구분	대수장군	개두	두수	채	대	화리
참최 3년	大袖-長衫, 長裙-裳 極麤生布	女笠帽 畧麤生布	首髻 畧麤生布	竹釵-箭筈	極麤生布	布履-白綿布
13월 연제	畧麤生布	畧麤練布	畧麤練布		畧麤練布	白皮靴
25월 상제	深染玉色	黑盖頭	頭簪		帶	白皮靴
27월 담제	黑色	黑盖頭	頭簪		帶	白皮靴
담제 후	吉服					

이상 왕비의 복제 역시 왕세손의 경우와 같이 13월 연제까지는 최복을 착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복색이 변화하는 것으로 상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졸곡전까지는 극추생포의 대수장군에 대를 띠고, 락추생포의 개두와 두수를 착용하고 죽채를 꽂고 있다. 거기에 백면포로 된 포리를 신는다. 이후 연제에는 옷을 락추생포로 개두와 두수 및 대는 연포로 바뀌었으며 신발 또한 백피화로 바뀌었다. 이 후 25월 상제는 옥색으로 물들인 장삼과 치마를 입고 흑색의 개두와 두수를 쓰고 있으며, 담제에는 옥색이 흑색으로 바뀌었으며, 신발은 계속해서 백피화를 신고 있다.

따라서 왕비의 상복도 상기에 따라 극추생포 - 락추생포 - 연포로 점차 거칠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으며 복색도 소색에서 짙은 옥색, 검정색으로 바뀌었으며, 담제 후에는 길복을 착용함으로써 상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복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혜빈, 왕세손빈, 내외명부 및 상궁 복제

이들의 복식은 모두 왕비와 같다. 다만 상궁이하 참최 3년복은 극추생포로 된 몽두의인

배자를 입고 개두와 두수는 락추생포를 사용하되, 시비 이하는 개두를 하지 않는다. 대는 극추생포 대신 마대를 띠며 백면포로 만든 포리(布履)를 신는 것은 왕비와 같다. 결국 왕비의 복제와 다른 것은 대수장군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몽두의라고 하는 배자를 입는 차이가 있다. 소재와 복색에 있어서도 극추생포에서 락추생포로 바뀌고, 소재에서 심염옥색, 심염옥색에서 흑색으로 바뀐 후 길복을 착용하는 것도 왕비와 같다.

(4) 종친 및 문무백관 복제

종친 및 문무백관의 상복은 참취 3년이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 및 지위에 따라 상기에 차이가 있다. 이들의 복식도 상사와 관련된 일에는 최복을 입으며 그 외에는 공복을 입는다. 이들의 복식은 왕세손의 복식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간단히 <표 3>으로 정리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만을 다루고자 한다.

<표 3> 각 신분별 상기별 복제

구분	의상	중의	관	건	수질, 요질 교대	죽장	리
참취3년	극추생포 부집변	락추생포 집변	락추생포	백연 금옥관자 거	수질-생마, 영-마승 요질-생마, 계-마승 교대-생마	죽장	관리
공복	생포원령		포과모		포과각대		백피화
13월연제	락추생포, 부 집변 부판,벽령, 최 제거	락추연포,	락추연포 연포-무, 영	락추연포	요질-치갈, 연포-계 교대-락추연포	죽장	마혜
공복	백포원령의		백포과모		백포각대		백피화
25월상제	심염회색원 령의		오사모 (흑립)		흑각대		백피화
27월담제	흑원령의		오사모		흑각대		백피화
담제 후	길복						

이상의 종친 및 문무백관의 상복과 왕세손의 상복의 차이는 최복의 소재뿐 아니라 복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길복으로 바뀔 때 군신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종친 및 문무백관에 포함되지 않는 수릉관, 시릉내시의 복식은 친손의 복식과 같다고 하였으며, 내시, 사알, 사약, 반감의 상복은 백관의 복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의 복식은 종친 및 문무백관의 복식에 포함시킨다.

(5) 별감, 각차비 복제

별감과 각차비의 최복은 의와 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극추생포로 된 직령의를 입고 생포건을 쓰고 생마대를 띠고 백승혜를 신는다. 이후 13월 연제에는 백의, 백건, 백대를 띠고, 25월 상제에는 심염회색의를 입고 흑건, 흑대를 띠다. 담제 이후에는 상복(常服)을 입는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별감과 각차비의 상복은 직령이며 여기에 별감은 주황초립을 쓰고 각차비는 청모를 쓴다. 따라서 최복으로 입을 때 소재만 극추생포로 바뀌었을 뿐 다른 형태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6) 성중관 복제

성중관은 내금위, 총의위, 총찬위, 총순위, 별시위, 족친위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상사와 관련되었을 때에는 생포원령의를 입고 과포모와 과포각대를 띠고 백피화를 신는다. 13월 연제에는 백포원령의를 입고 백포과모를 쓰고 백포각대를 띠고 백피화를 신는다. 그리고 연제 전 연거시에는 포의를 입고 포립을 쓰고 포대를 띠며 연제후에는 백의를 입고 백립을 쓰고 백대를 띤다.

(7) 녹사, 서리 복제

녹사와 서리는 상사와 관련되었을 때에는 생포의를 입고 생포과모를 쓰거나 평정건을 쓰는데 립을 쓸 때에도 포로 찐다. 과포대를 띠고 백피화를 신는다. 13월 연제에는 백의를 입고 백모 및 평정건을 쓴다. 백립을 쓰며 백대를 띤다.

(8) 생원, 진사, 생도 복제

생원, 진사, 생도는 포의를 입고 포립을 쓰고 포대를 띠고 백피화혜를 신는다. 13월 연제에는 백의, 백립, 백대를 하고 상을 벗는다. 학교에 갈 때에는 백건을 쓰고 전내에 들어갈 때에는 흑건을 쓴다.

(9) 갑사, 정병 복제

갑사와 정병은 백의, 백립, 생포대를 띠고 백피화를 신는다. 13월 연제에는 백포대를 하고 상을 벗는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성중관을 비롯하여 생원, 진사, 생도, 갑사, 정병의 상복은 포의에서 백의로 바뀌고 상을 벗으며, 이들 보다 하위의 계층에 속하는 서인 및 승도, 초조례와 나장 등은 포의를 입지 않고 백의만 입은 후 상을 벗는다.

따라서 신분이 낮을수록 상기가 짧으며, 복식도 생포나 포를 입지 않고 복색도 소재에서 백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흰색을 입고 상을 벗는다. 이들의 상복변화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각 신분별(남자) 상기별 복제

구분	별감,각차비	성중관	녹사,서리	생원,진사,생도	갑사,정병	서인,승도, 초조례,나장
참최 3년	직령의, 생포	생포원령의,과	생포의,생포과	포립, 포대, 백피	백의, 백립,	백의, 백립, 백

	건, 생마대, 백승혜	포모,과포대, 백피화	모, 평정건,	화혜	생포대, 백피화	대, 백건(초조례, 나장)
연거시		포의, 포립, 포대	과포립, 과포대, 백피화			
13월연제	백의, 백건	백포원령의, 백포과모, 백포각대,백피화	백의, 백모평정건, 백립, 백대	백의, 백립, 백대	백포대	
연거시		백의, 백립, 백대				
25월 상제	심염회색의, 흑건, 흑대					
27월 담제						
담제 후	상복					

3. 복제로 본 애통과 공공성

복제는 복식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슬픔을 드러내기 위한 제도이다. 상복은 참취(斬衰), 재취(齋縗),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總麻) 등 오복(五服)으로 분류한다.

복을 입는 기간도 오복에 따라 참취는 3년, 재취는 3년과 기년이 있으며, 대공은 9개월, 소공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이다. 이처럼 임금의 상에는 참취를 입었고, 어머니 상에는 재취로 3년을 입었으며, 조부모, 백부모, 형제의 상에는 재취 기년복을 입는다. 대공은 종부근제(從父昆弟)의 상에, 소공은 재종제, 외조모의 상에 시마는 종증조, 삼종형제, 증손, 현손의 상이 이에 해당한다.

영조의 국상을 보면, 6일째 되는 날 왕세손을 비롯하여 왕비, 혜빈 및 왕세손빈, 내명부빈 이하와 상궁, 종친 및 문무백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취 삼년복을 입었다. 이후 13월의 연제, 25월의 상제, 27월의 담제를 치르면서 각각의 상기에 맞는 최복을 착용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최복에 표현된 애통의 표현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상에서는 일반 사가와 달리 신분 및 역할에 따라 애통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영조국장의 발인반차도를 통해 국장에 참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애통의 사회적 공공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복 속 애통의 표현방식

영조의 국상시 복제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은 『영조빈전도감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왕의 국상을 당해 왕실의 가족 및 신하들이 입는 복제는 기본 참취 3년이다. 다만 종친 및 문무백관의 처는 재취 기년이다. 그 외 성종관 및 녹사 서리, 생원, 진사, 생도, 갑사, 병정, 서인, 승도, 초조례, 승도 등은 2년만에 복을 벗는다.

여기에서는 먼저 최복을 통한 애통의 표현방식을 왕세손과 왕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외의 상복 속 애통의 표현은 사회적 관계도를 드러내고 있는 발인 반차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왕세손을 비롯한 남성의 최복은 의상, 중의, 관, 건, 수질, 요질, 교대, 지팡이, 신으로 구성되며, 왕비를 비롯한 여성의 최복은 대수장군, 개두, 두수, 채, 화리로 구성된다. 이들 복식에서 드러난 애통의 표현방식은 직물과 복색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상복의 형태와 지팡이, 신발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직물

최복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망자와의 친소관계이다. 즉 영조의 국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왕세손(후일의 정조)을 비롯해서 왕비, 혜빈, 왕세손빈, 내명부이하가 있으며, 수릉관, 시릉내시, 감찰, 전의, 찬의, 인의, 종친문무백관 등이 있다.

이들의 상복은 각 신분에 따라 참최 3년에서 백의 2년까지 차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직물에 차이를 『영조빈전도감의궤』 복제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각 신분별 복제

신분	참최3년	재최기년	포복3년	백의3년
왕세손, 친손	○			
왕비	○			
혜빈, 왕세손빈, 양제이하, 친녀, 친손녀	○			
상궁이하 및 수규	○			
종친문무백관	○			
종친 및 문무백관 처		○		
동성이성 시마 이상 친	○			
동성이성 시마 이상 여	○			
수릉관 및 시릉내시	○			
내시, 사알, 사약, 반감	○			
별감, 각차비			○	
성중관, 녹사, 서리, 생원, 진사, 생도			○	
감사, 정병, 서인, 승도				○
초조례, 나장				○

위의 표를 토대로 직물의 차이를 보면, 참최 3년의 경우에는 극추생포로 의상 및 대수장군을 하고, 점차 상기가 줄어들어 따라 락추세포, 락추연포로 거칠기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최 기년의 경우에도 초추생포로 대수장군을 하고 락세생포로 개두와 두수를 하며 초추생포로 죽채와 포대를 하고 백면포로 포리를 했다. 이후 연제를 지낸 후 길복을 입는다.

포복 3년은 극추생포로 직령의를 입거나, 생포의, 포의 등을 입고 생포건, 생마대, 백승혜

또는 백피화를 신는다. 연제에 생포는 백포로 바뀌고 상제에 심염회색으로 바뀐 후 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다.

백의 3년은 백의를 입고 백립을 쓰고 백포대나 백대를 띤다. 연제에 생포대를 백포대로 바꾸고 상제를 지나 복을 벗는다.

이와 같이 직물의 거칠기와 가늘기의 정도가 슬픔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친 옷을 입음으로써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망자를 잃은 슬픔을 직물의 거칠기와 바느질의 투박함을 통해 기억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2) 복색

최복에서 길복으로 복식이 바뀌는 것은 슬픔을 최대한 드러내야 하는 상중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복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가장 슬픔이 큰 부모상과 같은 참최 3년 상에는 가장 거친 극추생포로 된 의상을 입는다. 여기에서 락추생포, 락추연포, 초추생포, 락세생포로 직물의 거칠기는 변화하지만 이들의 복색은 여전히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색이며 가장 투박하며 소박한 색으로 이승과의 헤어짐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 후 연제를 지내고 나면 연거시에는 흰색을 입으며 상제를 지내고 나면 참색이나 심염옥색, 심염회색등으로 바뀌고 담제에는 흑색으로 바뀌며, 담제 이후에는 길복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복색을 통해 상중에서 평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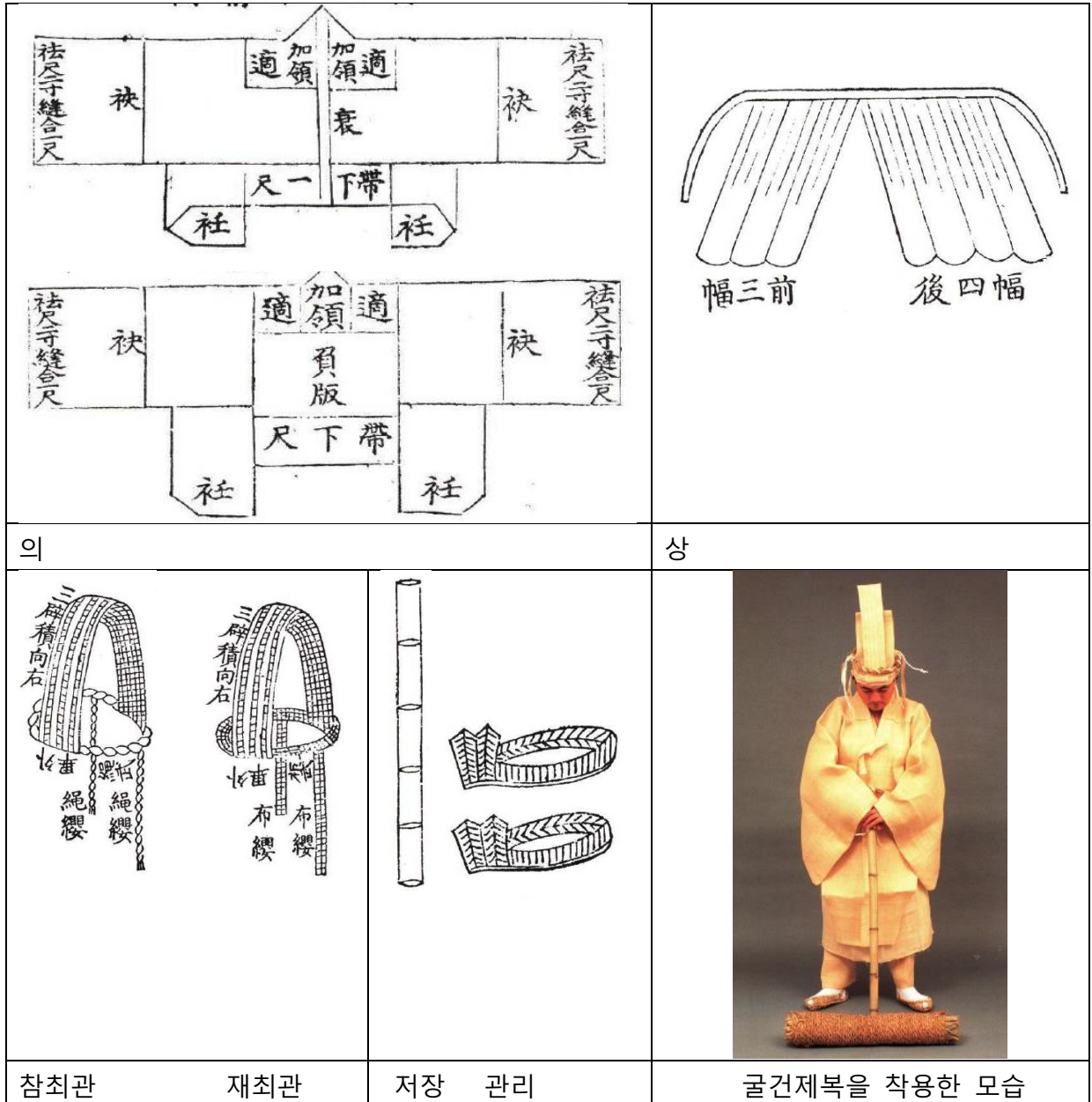
즉 신분에 따라 왕세손은 시사복인 홍색의 곤룡포를 입을 것이며, 종친 및 문무백관도 상복을 입으므로 흑단령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왕세손은 용보가 있는 곤룡포를 착용하게 될 것이며, 종친 및 문무백관 역시 흉배가 달린 흑단령을 입음으로써 복식에 문식이 가해지는 길복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3) 최복의 형태

남자의 최복은 의상이며, 여성의 최복은 대수장군이다. 『국조상례보편』에 실려있는 최복의 형태를 통해 애통이 표현된 지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ㄱ) 남자 최복

남자의 최복은 <그림 1>과 같이 의상, 중의, 관, 건, 수질, 요질, 교대, 장, 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남자의 예복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옷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관과 신발의 소재 역시 베를 사용하고 마승으로 무와 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왕세손의 최복

남자 최복에서 슬픔의 표현은 의에 있는 부판, 벽령, 최를 비롯해 거친 바느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의 등에는 부판이 있는데, 사방 1척 8촌의 베를 사용하여 뒷목 아래에 꿰매어 드리웠다. 가슴에는 최가 있는데 길이 6촌, 너비 4촌의 베를 사용하여 왼쪽 옷깃의 앞에 꿰매었다. 이는 효자의 비애를 가슴에서 억누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어깨의 좌우에 벽령이 있는데 각각 사방 8촌의 베를 사용하여 그 양쪽 머리를 꺾어 서로 붙여서 너비 4촌을 만들어 옆목 아래에 꿰맨 다음 부판의 양쪽 옆에 두고 각각 부판 1촌을 들이밀게 하였다. 벽령을 적(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애척(哀戚)하는 정을 지적한다는 의미를 담아 부모에게 연연되어 다른 일을 겸해 생각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저장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이다. 지팡이로 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인데 대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뵈기 때문이며, 안팎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지에 대한 안팎의 슬픔이 있음을 본 뜬 것이며 또 사시(四時)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함이 한절(寒節)과 온절(溫節)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본
 뜬 것이다.

(ㄴ) 여자 최복

여자의 최복은 <그림 2>와 같이 대수장군, 개두, 두수, 채, 대, 화리로 구성된다. 『국조
 상례보편』과 『영조빈전도감의궤』 기록을 보면, 대수는 본국의 장삼이고 장군은 상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여자의 예복에 해당하는 복식이다. 다만 직물에 차이가 있으
 며, 바느질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림 2> 왕비의 최복

여자 최복에서 슬픔의 표현은 직물과 바느질 방법에 있다. 직물은 극추생포로 가장 거친
 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느질 방법 또한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음으로써 슬픔을 표현하고자
 했다.

2) 반차도 속 애통의 공공성

『영조국장도감의궤』에는 총 34면에 달하는 채색된 발인반차도가 실려 있다. 이 행렬에
 등장하는 사람은 약 1445명이다. 그러나 이 날 이 행사를 위해 참여한 사람은 실제보다 훨
 씩 많다. 이는 가마를 바꾸어 드는 인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타 예차에 해당하는 관원들

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복식은 길의장과 흥의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에 경기감사, 당부관원, 돈체사, 예조당상, 호조당상, 대사헌, 병조당상, 의금부도사 등 총 9명을 필두로 하여 이들은 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있으며, 그 뒤를 잇는 전사대군사, 초관, 전사대장, 좌상군사에서 이후 후부고취에 이르기까지는 길의장을 들고 있으며, 이 대열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길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후 등장하는 소궤채여(笏櫃彩輦)를 시작으로 사기궤채여, 악기궤채여, 변두궤채여, 궤장가자, 유의칭가자, 복완함표신궤채여, 증옥백채여, 애책채여, 견여, 어제채여, 향정자, 명정, 대여를 들고 가거나 시위하는 사람이 모두 상복을 착용하였다. 이 후 우상군사와 초관, 우상장, 후사대군사, 초관, 후사대장은 상복인 기복을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발인 행렬에 참가하는 각 인물들의 복식을 각각의 역할에 따라 차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신분별 복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애통이 공공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길의장 속 신분별 복식

길의장 속 신분별 복식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감사를 비롯하여 당부관원, 돈체사, 예부당상, 호조당상, 대사헌, 병조당상과 의금부도사까지는 모두 최복을 입는다. 이후 전사대군사와 초관, 전사대장, 좌상군사와 좌상장까지는 모두 기복(器服)을 입고 호위한다. 다음으로 흥개를 든 의장수는 청건에 청의를 입고 있으며, 황룡기와 금, 고, 주작기, 천하태평기, 가구선인기, 벽봉기, 군왕천세기, 은교의, 은각답, 은권자, 은우자, 홍교의, 홍각답의 기물을 들고 중앙에서 가는 사람들은 자건에 자의를 입고 있다. 또 사금은 사모에 흑단령으르 입고 흑각대를 띠고 주장을 들고 있으며, 의장수들은 130명의 의장수들은 모두 흥건, 흥의를 하고 있다. 장마를 끌고 가는 자들은 초립을 쓰고 청의를 입고 있으며, 흥개와 청양선을 들고 가는 자들은 청건에 청모를 쓰고 있다.

다음으로 전악은 복두에 녹단령을 하고 있으며,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는 모두 복두에 흥단령을 입고 있다.

교명, 죽책, 옥인, 책보, 시책보, 혼백요여, 향정자 등을 실은 요여를 메고 가는 담배군들은 모두 자건에 자의를 하고 있다. 또 시위별감과 부책별감은 모두 흑건에 녹단령을 입고 있다.

이 외에 내시, 차비관, 대축, 섭사복정, 섭좌통례, 충찬위 등은 모두 사모에 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이들의 복식은 모두 평상시 복식으로 상례를 표현하는 복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왕이 참석하는 각종 조회 및 연회 등의 궁정행사와 제향 및 능행, 열병식 등의 행차 때 위의를 과시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앞에서 선도하는 경기감사 등 9명만 상복을 착용하고 그 나머지는 길의장에 해당하는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국가의 위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발인반차도를 통해 길의장 속 각 신분별 복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경기감사	전사대 군사	초관	사금	고
				
의장수	대각	장마	청개	평교자
				
전악	차비관	삼색촉룡	시위별감	내시

<그림 3> 길의장 속 각 신분별 상복

(2) 흥의장 속 신분별 복식

영조 국상에서 흥의장의 시작은 후전대기가 앞에 서고 방상씨가 등장하면서 흥의장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신분에 맞는 최복을 입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최복을 입는 것은 아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추생포에서 백의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이다. 발인반차도에서는 크게 남자의 상복은 최복, 포의, 백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자의 복식은 대수장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호위군사의 경우에는 흥의장일지라도 기복을 착용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흥의장 속 각 신분별 복식은 후전대기를 시작으로 각 의장수들은 포의를 입고 있다. 이어 소궐채여, 악기궐채여, 변두궐채여, 궐장가자, 유의칭가자를 메고가는 담배군들은 모두 백의를 입고 있으며, 이 후에 등장하는 복완함표신궐채여, 증옥백채여, 애책채여, 견여, 어제채여, 향정자, 대여를 메고 가는 담배군들은 모두 백의보다 거친 포의를 입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여의 앞뒤에서 호위하고 하는 차비관, 내시, 수릉관, 시릉관, 승지, 사관, 총호사, 국장도감당상, 도청, 낭청, 감조관, 병조당상, 상의원관원, 내의원관원, 금부당상, 동반, 서방, 병조정랑, 예조정랑들은 모두 벽령이 붙은 최의를 입고 있다. 그러나 흥의장에서도 우

상군사와 초관, 우상장, 후사대군사, 후사대장은 모두 기복을 입고 있어 호위자들의 복식은 길의장과 흥의장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복은 최복, 포의, 백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인반차도를 통해 흥의장 속 각 신분별 복식을 다음의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전대기-포의	사궐채여-백의	차빈관-최복	배안상-백의	죽안마-포의
				
청수안마-포의	화철축농-포의	만장-포의	상궁-대수장군	수릉관-최복
				
사관-최복	총호사-최복	동반, 서반-최복	우상군사-기복	초관기복

<그림 4> 흥의장 속 각 신분별 상복

4. 결론

상(喪)은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장을 통해 죽음이 완전한 존재의 소멸이 아닌 존재의 이동 또는 사라짐에 의한 이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별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복식에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상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슬픔이 아닌 국가차원의 슬픔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국장에서 애통의 공공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복식은 의례가 갖는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시각화된 주체이므로 망자에 대한 슬픔을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 슬픔을 극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복식에 드러난 애통의 감정은 신분별, 상기별, 친소관계에 따라 차등이 있었으며, 구

체적인 복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식에 드러나 슬픔의 표현방식은 첫째, 최복을 조성하는 직물의 거칠기와 가늘기이다. 국상은 친소관계에 따라 참최 3년, 재최 3년, 재최 기년, 대공, 소공, 시마로 구분한다. 영조의 국상은 왕세손을 비롯한 왕비, 혜빈, 왕세손빈, 상궁이하, 종친 및 문무백관, 종친 및 문무백관의 처, 동성이상 시마 이상 처, 동성이상 시마 이상 여, 수릉관 및 시릉내시, 내시, 사알, 사약, 반감, 별감, 각차비, 성중관, 녹사, 서리, 생원, 진사, 생도, 갑사, 정병, 서인, 승도, 초조례, 나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식은 왕세손에서 종친 및 문무백관까지는 참최3년으로 극추생포의 최복을 입고, 종친 및 문무백관의 처는 재최 기년으로 약추생포와 약세생포의 개두를 썼다. 다음으로 수릉관이하 반감까지도 극추생포로 된 최복을 입었으며, 성중관에서 생도까지는 포복 3년, 갑사에서 나장까지는 백의 3년의 복을 입었다. 이는 가장 거친 생포에서 생포, 백의, 참의, 현포를 지나 길복으로 바뀌어 갔다.

둘째, 복색에 있어서도 왕세손은 극추생포의 소색에서 백색, 참색, 현색을 거쳐 용보가 있는 곤룡포로 바뀌었으며, 왕비 역시 극추생포로 된 대수장군의 소색에서 심염옥색, 흑색을 거쳐 길복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들의 복식은 발인반차도에서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왕세손 및 남자들의 최복에 표현된 슬픔은 최의에 별도로 붙어있는 베 조각이다. 등 뒤에 붙은 부판과, 목 옆에 붙은 벽령, 가슴 앞에 붙은 최는 모두 슬픔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부판은 슬픔을 짊어 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벽령은 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애척의 정을 지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가슴 앞에 붙은 최는 흘러 넘치는 슬픔을 억누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왕비를 비롯한 여자들의 최복은 대수장군으로 여기에는 별도의 베조각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옷감의 가장라지를 꿰매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슬픔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넷째, 왕세손의 저장은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대나무의 둥근 형태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며 안팎의 마디가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안팎의 슬픔이 있음을 본 뜬 것이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함이 변함없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발인반차도에서 표현된 신분별 복식은 크게 길의장 부분과 흥의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길의장에서는 처음 예조당상에서 의금부도사까지만 최복을 입고 그 이후에는 모두 길복을 착용하였으며 방상씨를 시작으로 하는 흥의장의 경우에는 모두 상복을 입고 호위군사만이 기복을 입었다. 그러나 흥복에서도 차등이 있어 최복을 입는자, 포의를 입은자, 백의를 입은자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신분별 위계질서에 따라 흥복을 거칠기와 가늘기가 달라지고 있으며 복색에 있어서도 소색과 백색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국조오례의』, 『경국대전』, 『국조상례보편』,

『영조빈전도감의궤』, 『영조국장도감의궤』

이현진, 「정조 초 영조의 국장절차와 의미」, 『태동고전연구』27, 2011.

조재모, 「조선시대 국장의 절차와 공간이용-정조 국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2), 대한건축학회, 2013.

안희재, 「조선후기 발인반차의 변화와 의미」, 『한국학논총』(34), 2010.